평창·진부장례식장에 다양한 시책 추진...주민 만족도 높아

우정연 기자 | 승인 2023.08.04 17:16

꽃장식 가격 조정 • 장의차량 자율요금선택제 등

진부장례식장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올 1월 평창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평창·진부장례식장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4일 공단에 따르면 평창·진부 장례식장 제단 꽃장식 가격 조정과 장의차량 자율요금선택제 시행에 나서 주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는 등 공공서비스를 향상했다.

이에 올 상반기 평창·진부 장례식장은 총 177건의 장례행사 중 55%에 달하는 97건을 위임받았다.

장례 절차 진행을 위임하면 상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가 입관, 제례 의전 등 장례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격식 있는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

외부 상조회사 이용 대비 장례비용을 50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상반기 기준 약 5000만 원 이상 혜택을 제공했다.

제단 꽃장식의 경우 지역 납품업체와 협의해 평균 6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0% 이상 대폭 인하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장의차량 자율요금선택제는 협력업체에서 운행구간, 승차정원, 운행요금을 제안하고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창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최적의 서비스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